GERI 산업이슈 브리프
2023년 제1호

「MWC 2023」
트렌드와 구미 지역 시사점

2023. 3.

| 내용 |

[요약]

1. 개요
2. MWC 2023 : 주요 이슈
3. 구미 시사점
4. [참고] MWC 2023 : 테마

| 작성 |

구미정책연구소 Tel. 054 479 2262 Mail. thekey@geri.re.kr

GERI 구미전자정보기술원

MWC 2023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3 개최

- 2023년 올해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 세계 202여 개국, 2,400여개 기업, 8만 8,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석
-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T, KT, LGU+ 등 총 130개사가 참가

MCW 2023의 핵심 주제는 속도(VELOCITY)로 실제로 가속되는 사실을 강조

- 테마 : 5G 가속화(5G Acceleration), 실감형(Reality+), 오픈넷(OpenNet), 핀테크(FinTech), 디지털화(Digital Everything)

MWC 2023의 주요 이슈로는 '중국', '망중립성', 'AI'

- 중국 테크 기업의 유럽시장 집중, 망사용료를 둔 통신사-콘텐츠플랫폼 업체의 논쟁, AI 기반 제품 등으로 이동통신산업의 현재 상황 알 수 있음.

절반 이상이 통신 이외의 분야에서 참가

- 이동통신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로봇, UAM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를 기반으로 모바일 및 이동통신산업의 핵심 변화 등을 제시

MWC 2023을 통한 구미 시사점

- 첫째, 인공지능(AI) 연관 산업의 발굴과 대응방안으로 인공지능 및 SW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국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함
- 둘째, 무인경제 시대에 대비한 LG전자 등과 연계 가능한 지역 내 로봇산업 육성과 제조업의 디지털화 대응한 대기업과의 지역기업간 협업형 과제 발굴이 중요함
- 셋째, 기술기반 콘텐츠 기업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MWC 2023」 트렌드와 구미지역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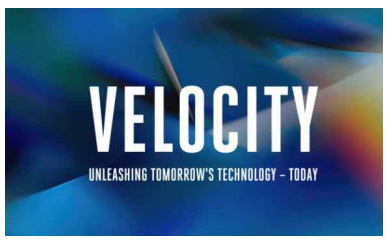
1 개요

빠르게 회복 중인 이동통신 전시회 MWC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obile World Congress(이하, MWC)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었음.
- 2023년 올해는 전세계 202여개 국가, 2,400여개 기업, 8만 8,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
  - MWC는 2019년 10만 9,000여명(2,400여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 2021년 최초로 온·온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2만여명, 300여개), 이후 2022년 6만 1,000여명으로 개최
-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T, KT, LGU+,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5개사와 중소·중견 기업 60개사, 스타트업 65개사를 포함해 총 130개사 참가
- 이는 팬데믹(pandemic) 이전인 2018년 172개사, 2019년 201개사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컸던 지난 2021년 76개사와 2022년 108개사에 비해서는 늘어난 규모로 빠르게 회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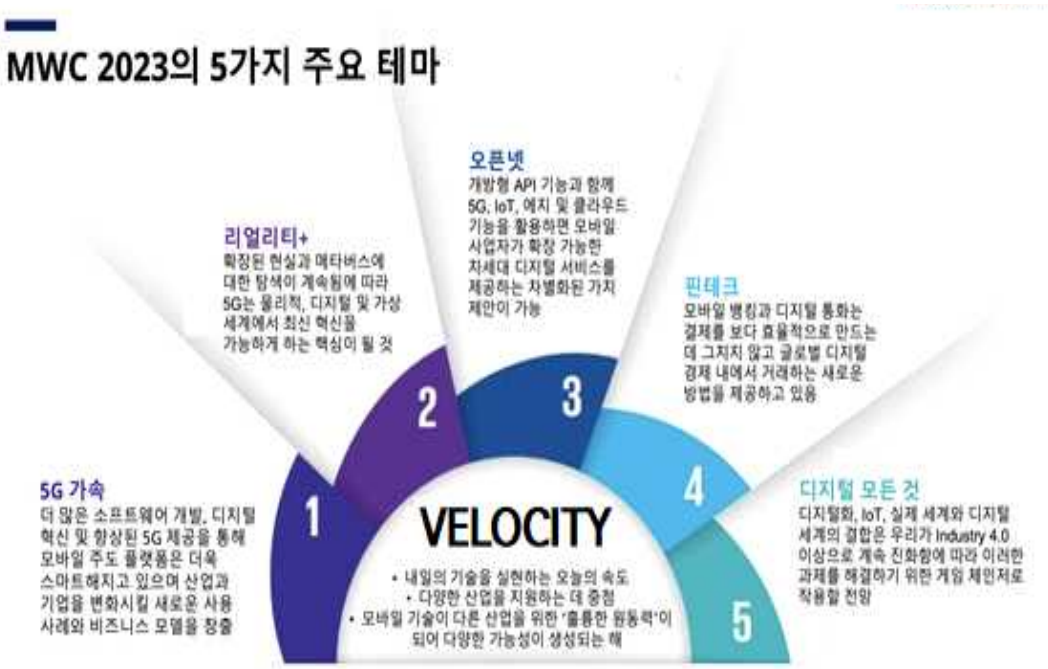
모바일 및 이동통신산업의 미래 제시

- MCW 2023의 핵심 주제는 속도(VELOCITY)로 변화하는 기술이 아닌, 실제로 가속되는 사실을 강조
  - MWC 2023 테마는 5G 가속화(5G Acceleration), 실감형(Reality+), 오픈넷(OpenNet), 핀테크(FinTech), 디지털화(Digital Everything)로 혁신 기술이 실현하는 미래를 전망할 수 있었음.



자료 : MWC(mwcbarcelona.com)

- MWC 2023은 2022의 주제인 연결성의 촉발(Connectivity Unleashed)의 연장성
  - 주요 테마인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핀테크(FinTech), 테크 호라이즌(Tech Horizon)의 연장선이자, 속도의 가속을 통한 메타버스, 오픈 네트워크, XR, 일상의 디지털화 등이 다양한 산업에 확장·적용하는 모바일 기술이 주도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제시



자료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themiilk/business/contents/230221094756988kx, 수정

- 이번 MWC 2023은 절반 이상이 통신 이외의 분야에서 참가해, 모바일을 넘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로봇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를 총망라하는 행사로 치러졌음.
- 마지막으로 MWC 2023의 주요 이슈는 '중국', '망중립성', '인공지능(AI)'
  - CES에서 배제되었던, 중국 테크 기업의 유럽시장 집중, AI-메타버스 시대를 중심의 도래에 따른 망사용료 관련 이슈, AI 혁명 등이 주요 키워드로 모바일산업이 직면한 현재 상황을 제시

2 MWC 2023 : 주요 이슈

중국 테크 기업, 유럽시장 집중

- CES 2023에서는 중국 기업과 중국 스타트업이 사라져,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이 쇼를 지배했다면, MWC 2023에서는 중국기업 전시품이 다수였으며, 미중 갈등을 피해 유럽 시장에 전력투구
- **(화웨이)** 미국 무역 제재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히던 화웨이는 행사장 1관에 초대형 부스를 설치하고 5.5G,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그린 ICT, 단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임.
  - 행사장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화웨이 부스는 '기가버스' 이니셔티브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네트워크, 지능형 컴퓨팅 등 첨단 기술력을 뽐내며 연일 참관객들로 북새통
- **(샤오미, 오포, 아너)** 폼펙터 경쟁사인 삼성전자 부스 주변에 자리를 잡고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폴더블폰을 대거 선보임.
  - 유럽 시장에서 중저가폰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도 갤럭시와 아이폰에 도전장, 완성도는 갤럭시나 아이폰에 비해 부족하지만,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
- **(폼펙터 경쟁)** 국내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철수 이후 삼성전자 혼자 버티고 있지만, 중국은 화웨이, ZTE, 샤오미, 아너, 오포, 원플러스, 레노버 등 7대 중국 업체들이 중국 내수 시장부터 경쟁 치열
  - 롤러블, 9분 완충폰, 냉각 액체게임폰 등 다양한 폼펙터로 내수 시장에서부터 경쟁 중

망중립성[1)]

- MCW 2023의 핵심 주제는 속도(VELOCITY)로 변화하는 기술이 아닌, 실제로 가속되는 사실을 강조
  - 인공지능(AI)의 최대 화두 챗GPT와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사업의 사용 폭증은 결국 망 부하를 유발하기 때문이며, 통신사(ISP)와 메타, 넷플릿스, 구

1)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글 등 플랫폼 업체들과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

- **(공정)** 유럽연합(EU)가 추진하고 있는 '기가비트연결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공정성을 강조함.
- **(통신사 주요 의견)** 통신사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에 집중된 기하급수적인 트래픽 증가에 대해 비용측면에서 균형이 필요
- **(콘텐츠 플랫폼 주요 의견)** 넷플릭스는 지난 5년 동안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600억 달러(약 79조원) 이상 콘텐츠에 투자했으며, 통신사들도 콘텐츠 제작 비용 부담이 필요
- MWC 2023에서 통신사들의 의견은 인공지능(AI)와 5G, 증강현실(AR) 등의 모든 혁신은 '네트워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통신 업계는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 EU에서는 5G 통신망과 광섬유 인프라 구축 비용 분담을 위한 기금을 내거나 통신사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 중
  - 한국에서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

한국기업의 인공지능(AI) 선도

- **(챗GPT)** MWC에서는 '챗GPT'에 대한 언급이 적었으며, MWC 2023 테마에서도 `22년과 달리 제외됨.
  - 국내 기업들은 인공지능(AI)를 사업의 중심에 둔 핵심사례 대거 소개
  - SK텔레콤과 KT 등 한국의 통신사들이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메인 사업에 중심임을 보여줌.
  - **(SKT)** AI가 이끄는 미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통신사로부터 'AI컴퍼니'로의 진화를 선언
    - 'AI to Everywhere(AI를 모든 곳에)' 비전을 선포
    - AI, UAM, 6G 등의 관련 기술과 멀티모달(Multi-modal)이 장착된 AI모델 '에이닷'을 선보임
  - **(KT)** 디지털시대를 개척하는 디지털 전환(DX) 파트너 디지코 KT
    - 초거대 AI인 '믿음', 개방형 AI 연구개발 포털 '지니랩스'를 공개

-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운송경로를 제공하는 '리스포(LIS'FO)', AI로 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솔루션 '리스코(LIS'CO)'
- AI 기반 기업과 운송기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브로캐리'와 레벨5 수준의 자율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ATI)' 기술도 공개

국내외 주요기업 동향

삼성전자	
■ MWC 현장에서 프라이빗 부스를 통해 기존보다 고도화한 5G 네트워크 기술을 공개 ▸ 신규 칩셋을 적용한 삼성전자의 5G 기지국은 기존 장비보다 데이터 처리 용량이 약 2배 늘어나면서도 전력은 40%쯤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솔루션과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임	
SKT	
■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6G 등 미래 ICT 기술을 소개 ▸ (AI) 초거대 AI 모델 에이닷, 로봇·보안·미디어·의료 등에 적용된 비전 AI, AI반도체 사피온, 로케이션 AI 솔루션 리트머스, 반려동물의 X-ray 진단을 돕는 메디컬 AI '엑스칼리버' 등 ▸ (UAM) 실물 크기의 UAM 가상 체험 시뮬레이터, 티맵 통합 MaaS(호출형 이동수단 서비스) 기반 예약·발권 서비스	
KT	
■ 디지털 시대를 개척하는 디지털 전환(DX) 파트너 '디지코 KT'를 주제로 초거대 AI인 '믿음', 개방형 AI 연구개발 포털 '지니랩스'를 공개 ▸ (배송로봇) 로봇 통합 플랫폼과 냉·온장 배송 로봇도 소개 ▸ (메타버스) K팝에 맞춰 춤을 추면 AI가 평가해주는 '메타댄스'에도 많은 관람객	

한컴그룹	
■ 4년 만에 MWC에 복귀, AI 기반의 OCR(이미지 문자 변환 기술) 소개 ▸ 영어문서 기준 99.69%까지 정확하게 인식 ▸ 자동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보정하며,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 기술로 문서의 종류까지 자동으로 분류	
퀄컴	
■ 차세대 5G 기술인 '5G 어드밴스드'를 세계 최초로 지원하는 '스냅드래곤 X75'을 전시 ▸ 스페인 이통사 텔레포니카, 글로벌 장비업체 에릭슨과 5G 초고대역 주파수(밀리미터웨이브·㎜Wave) 상용 서비스를 시연, 상용 서비스의 다운로드 속도가 최고 2.7Gbps를 기록 ■ 주력 반도체 핵심부품 및 솔루션을 기반으로 XR, 모빌리티, 모바일, AI 분야의 협력 생태계 및 사업 확장/고도화 추진	
노키아	
■ 노키아는 안테나 장비를 부스에 직접 설치하고 6G 네트워크를 구현 ▸ (6G) 가상의 차량이 현실의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멈추는모빌리티 분야 예시를 시연하고, 단체 영상회의 환경에서 가까운 사람의 음성을 분리해 들을 수 있는 몰입형 음성 서비스 소개	
NTT 도코모	
■ 6G 핵심 기술인 센싱결합 통신을 선보였으며, XR 등 관련 전시 ▸ (XR) 영상, 애니메이션 등 가상 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다양한 XR 경험 제공	
마이크로소프트(MS)	
■ 오픈AI에 12조원을 투자하는 자사 검색 포털 '빙'에 챗GPT를 적용 ▸ 음성 인식 AI '뉴언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이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및 기업 운영 솔루션을 제시	
Intel	
■ 가상화 기지국(vRAN) 특화 프로세서 등 5G 인프라 성능 향상 및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솔루션 공개 ▸ SKT와 협력 개발, SKT는 최대 55%까지 전력소모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 '23년말 상용장비에 적용해 '30년까지 약 10GWh의 전력소비·5천톤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Ericsson	
■ 물리적 코어 네트워크를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를 활용한 수익화 방법을 제시 ▸ 전 세계 10억명 이상을 연결하고 있는 5G에 수익화 모델을 적용시킨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	
화웨이	
■ 화웨이는 10Gbps(초당 10기가비트) 속도를 내는 5.5G 서비스를 2025년부터 상용화 제시 ▸ 테라헤르츠(㎔) 대역을 활용해 위성 네트워크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 6G 비전의 방향성도 시연 ▸ (모바일) 자체 운영체제 'HarmonyOS2'를 탑재한 아웃폴딩폴더블폰(바깥으로 접는 방식) 'Mate Xs2' 전시	
Xiaomi	
■ 프리미엄 스마트폰, XR, 로봇 등 고부가가치/미래 산업 분야의 제품 및 기술 공개 ▸ (모바일) 'Xiaomi 13' 시리즈(13, 13 Pro, 13 Lite) ▸ (XR) 무선 AR 스마트 글래스(Xiaomi Wireless AR Glass)의 프로토타입을 공개 ▸ (로봇) 'CyberDog' 전시, 로봇 분야의 기술력 홍보	
OPPO	
■ 플립형 스마트폰, AR 글래스 등 전시 ▸ (모바일) '갤럭시Z 플립'의 폼펙터 기반 외부 디스플레이 대형화 ▸ (XR)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통화연결, 실시간 번역, 내비게이션표시 등 초경량 AR 글래스 'Air Glass 2' 소개	
Lenovo	
■ 롤러블 디스플레이 탑재 노트북 및 스마트폰 시제품 소개 ▸ (노트북) 키보드 아래로 연결된 화면이 위로 확장 ▸ (스마트폰) 휴대폰 뒤로 말려진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나타나며 5인치 디스플레이가 6.5인치 디스플레이로 확장	

자료 : MWC 2023 TREND REVIEW(KEIT, 2023.3) 및 언론보도 종합 재구성

(종합) MWC 2023의 기업 동향 및 제품동향을 종합해보면 ① 5G의 보급화, ②메타버스, ③인공지능(AI), ④로봇, ⑤UAM 등의 산업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군으로 전망할 수 있음.

3 구미 시사점

인공지능(AI) 연관 산업의 발굴과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화두로 '챗GPT' 자체에 대한 언급이 적었지만, 이번 MWC 2023에서 다수의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임.
- 통신 기업들이 AI 기술을 앞다퉈 선보이며 빅테크 기업들에 도전장을 냈으며, 통신사들의 AI 기술과 시장에 진입 및 대응은 필수 요소
- 이미 경북도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챗GPT 확산에 따른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추진 중이며,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와 행정 분야 활용방안을 논의
- 경북연구원은 지자체 최초로 챗GPT를 경북에 맞게 바꾼 인공지능 챗봇인 챗경북(http://chatgdi.kr/)을 공개

인공지능 및 SW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구미를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과 함께 기술인재(Tech Talent) 양성이 중요
- SW 관련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인력 양성 사업 등 지역 내 대학(이론, 과정개설)-기관・기업(실습)과의 협업과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금오공과대학교 인공지능공학과 신설(2022년)과 같이,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AI 관련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융합 인재 양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국방산업 육성

- 항공우주와 같은 첨단 산업을 비롯해 재해 복구와 농업 등 삶을 개선하는데도 AI가 힘을 보태며, 5G를 비롯한 통신 기술과 협업을 바탕으로 AI 기술의 발전도 한층 빨라질 거라 전망함.
- 세계최대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2]의 CEO 제임스 테이클릿은 국방산업과 AI 접목에 대해 언급함
- AI는 의사결정의 동반자로 언급하며, 최근 AI가 조종하는 전투기가 17시간 이상 스스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고, F-16에 AI를 장착한 비스타 X-62A는

2) 정부를 위해 항공우주장비 및 방위장치 제작을 주업무로 하는 미국 기업

다른 항공기의 동작 특성을 모방하는 AI 모델을 적용

- 반면 AI 기술의 쓰임새와 비례해 늘어나는 윤리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짐

▪ 향후 미래 방산의 핵심 키워드는 '유무인 복합' 과 ' AI를 기반으로 한 무인화'가 될 것으로 전망

- 구미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통하여,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3]를 중심으로 방산육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 할 예정

▪ 메타버스(실감콘텐츠) 기반 방산직업 훈련혁신센터 구축(가칭) 필요

- 미국의 경우 육군 훈련에 XR 기술을 활용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한 방위산업 관련 분야인 항공, 함정 등 방산분야의 교육용(훈련) 실감형 콘텐츠 기반의 메타버스 전문 훈련기관 추진이 필요함.
- 이를 기반으로 조종사, 항해사, 관제사, 정비사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교육 훈련 전문 기관 설립 추진이 필요

무인경제 시대에 대비한 로봇산업 육성 및 디지털화 대응 과제 발굴

- '23년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46조원(전년대비 12% 증가)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기업의 로봇 시장 진출 및 개발 경쟁은 가속화
- MWC 2023에서의 주요 제품과 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로봇 생태계 본격 확산과 더불어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AI)의 접목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무인(無人)경제로 전환하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생산을 위한 산업용 목적으로 사용되어오던 로봇이 다양한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IoT, 자동학습능력을 위한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과 안전 증진의 역할도 할 가능성
- 모바일 기술이 이끌어나갈 인간 친화적인 미래사회의 모습을 제시함.

▪ 로봇산업 육성과 로봇생산기지로의 전환 기반 조성 필수

- MWC 2023에서는 로봇의 분야는 네발, 방역, 배달,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 솔루션, 물류, 정밀기계 제작 등으로 무인경제 시대와 로봇의 일상화, 공

3) 소형 공격 헬기 조종사가 임무 수행 중 위험 지역 정찰을 위해 다수의 무인기를 호출하고 조종사가 헬기와 함께 무인기를 동시에 조종, 통제하여 입수한 정보를 지상 부대와 공유하는 체계. 이를 통해 우리 군 병력의 안전은 물론 작전 수행 성공률도 높일 수 있는 시스템([네이버 지식백과,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21. 05. 31.)

존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

- 통신사들은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여 휴대폰 단말기, XR 기기와 유사하게 제조사로부터 로봇 조달 후 소비자에게 판매/대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함.

- **(LG전자 구미사업장)** LG전자 구미사업장이 TV 등 주력 생산 제품에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을 추가하고, 사업장 이름도 '구미 퓨처파크'(Future Park) 변경
  - 구미사업장은 구미 A1공장에 로봇 생산라인을 신설, `22.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LG전자의 로봇 브랜드 '클로이' 로봇 생산을 본격화했으며, 구미사업장이 생산하는 로봇은 병원·호텔·식당 등에서 자율주행하며 물건을 운반하는 서빙로봇과 안내로봇 등
  - LG전자는 자회사, 중국 공장 등에서 클로이를 생산해 왔지만 앞으로는 클로이 라인업 6종을 구미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할 것으로 밝힘.

- **(로봇관련 기업 육성)** LG전자와 연계 가능한 로봇 관련 기업 발굴과 로봇 관련 사업으로 전환 유도 및 육성 지원 필요
  -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AMR) 플랫폼 구축사업**[4]과 같이 로봇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수주가 필요함
  - 또한 로봇 관련 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서빙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의 사례와 같이 국내 로봇산업 생산거점 조성을 통한 로봇 생산 비중과 고용 창출 향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 조성

- 대기업과의 지역기업간 협업형 과제 발굴
  - 제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제조 과정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 설계 및 생산분야에 대응한 기반 마련이 필요
  - 이를 바탕으로 5G 기술기반의 무선 제어와 제조 자동화, AR/VR 기술 적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구미는 전국 유일의 이동통신(2G~5G) 시험망 보유, 5G 테스트베드 구축과 지역주력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스마트 도시, 스

4)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초광역협력형)과제(산업통상자원부, KIAT)로 참여지자체는 대구・경북(구미, 포항)이며, 사업비는 총 146.3억임. 참여기관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수행하며, 수행기간은 `23.4~`25.12년임.

마트 팩토리 등과 연계된 제조업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발굴이 필요

- **(대기업 협력형 과제 발굴)** 반도체 특화 디지털 물류 실증 사업 추진 사례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업형 과제 발굴 및 추진
- **(수요기반 네트워킹 필요)**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의 기술수요 발굴과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매칭이 가능한 네트워크 추진 필요

기술기반 기업육성과 신산업 육성 소통창구 구축

- 지역의 기술기반 콘텐츠 기업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
  - MWC 2023 내 스타트업 전문관인 **4YFN**[5]에 참가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이 필요
  - 글로벌 ICT산업은 소위 'C-P-N-D'생태계로 정의되며,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가 융합되면서 경쟁하고 발전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모바일 기업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 중인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요

- 콘텐츠 강국 이미지를 활용한 게임, 엔터테인먼트 뿐 아니라 국방, 교육, 쇼핑 등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
  -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및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기반으로 더욱 적극적인 디바이스 및 콘텐츠 기업의 육성과 발굴 필요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 **(구미기업부설연구소 협의회)** 'C-P-N-D'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발굴에 대한 대응방안 중심으로 운영 재편이 필요
  - 미국을 중심으로 C와 P 중심이었다면, 이번 MWC를 통해 N과 D의 미래를 보고 분석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N과 D를 포함한 협의회 재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 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 필요
  -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 및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운영방안 개선

5) 4YFN(4 Years from Now) : 향후 4년 뒤 MWC 본 전시에 참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창업을 돕기 위한 전문관(MWC 8.1 Hall)

- 발굴된 기업 의견 및 과제의 정부 R&D 및 구미시 R&D 연계(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하는 방안 마련

참고: MWC 2023 : 테마

(MWC 2023 테마) 5G 가속화(5G Acceleration), 실감형(Reality+), 오픈넷(OpenNet), 핀테크(FinTech), 디지털화(Digital Everything)

① 5G 가속화(5G Acceleration)

-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에 약 9,600억 달러(한화 약 1,250조원)의 가치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며, 5G 통신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타 산업에 5G를 적극 활용하며 산업 간 경계 해제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② 실감형(Reality+)

-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의 몰입형 기술에 더해 웹 3.0, 인공지능(AI)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으며, 확장현실 및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됨에 따라 물리적 디바이스, 디지털 및 가상 세계 구현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③ 오픈넷(OpenNet)

- 오픈넷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 평균 24.8%로 약 149억 달러(약 19조 3,400억원)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개방형 API 기능과 함께, 5G, IoT,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면 모바일 사업자가 확장 가능한 차세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가치 제안이 가능

- 6G 시대의 핵심 기술인 '오픈랜(Open-RAN)'도 통신기업 사이에 화두였으며, 오픈랜은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통신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

④ 핀테크(FinTech)

- 2023년 기준 디지털 결제 시장 규모는 9조 5,000억 달러(약 1경, 2,333조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은행은 4조 5,000억 달러(약 5,8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씨티은행, 구글, HSBC,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자 등 핀테크 산업의 주요 플

레이어들이 참여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할 방법과 고객경험(CX)을 개성하는 혁신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논의가 진행

-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부상으로 핀테크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금융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으나. MWC 2023에서는 인공지능(AI)에 의해 부각되지 않음.

⑤ 디지털화(Digital Everything)

- 핀테크, 제조 및 스마트 모빌리티에 중점을 둔 각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과 가치 창출 방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
  - 피지컬(Physical)과 디지털(Digital) 합성어인 '피지털(Phygital)'의 사례 및 트렌드, 디지털 헬스 산업의 잠재력과 전망, 친환경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활용 방안이 소개

- 산업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며, 의료 산업, 스포츠, 헬스 등 Digital Everything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들을 다양하게 제시

참 고 문 헌

보고서

- 김양팽, CES 2023으로 본 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미래, 산업연구원, 2023.2.
- 삼일PwC경영연구원, 산업별 주요 이슈 분석(IT・통신&미디어), 삼일회계법인, 2023.3.
- 손재호 외, MWC 2023, 지금은 가속도의 시대, Deloitte Insights, 2023.3.
- 신동형, 월간 신동형 Vol.1, 2023.3.
- 이규복 외, MWC 2023 TREND REVIEW,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023.3.
- 전현희, 산업대전환이 묻고(問), CES 2023이 답(答)하다, 산업연구원, 2023.2.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MWC 2022로 알아본 미래 디지털 기술 트렌드, 한국무역협회, 2022.3.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MWC 2023에 국내 스타트업과 대기업 함께 진출!', 2023년 03월 01일.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업력, 매출액 기준 중심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제도 바꿔야', 2023년 03월 09일.
- 한국콘텐츠진흥원 보도자료, '세계로 뻗어가는 K-콘텐츠 스타트업'콘진원, MWC '4YFN' 2023 공동관 운영 성료, 2023년 03월 06일.

사이트 발췌

- MWC 공식홈페이지, https://www.mwcbarcelona.com/
- OPPO 공식홈페이지, https://www.oppo.com/en/events/oppo-mwc-2023/
- SK텔레콤 뉴스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549615&member

No=34920570&vType=VERTICAL

- 삼성전자 공식홈페이지, https://semiconductor.samsung.com/kr/event/mwc-2023/
- 샤오미 공식홈페이지, https://www.mi.com/cyberdog
- 에릭슨 공식홈페이지, https://www.ericsson.com/en

언론, 뉴스, 신문

- DEMOND CURETON, NTT DOCOMO Trials 6G XR Use Cases at MWC 2023, XR TODAY, 2023.03.03.
- ITWorld 편집부, KT, MWC 2023서 '로봇 메이커스' 플랫폼 및 콜드체인 시스템 기반 '자율주행 배송로봇' 공개, ITWORLD, 2023.02.28.
- Michael Simon, MWC에 애플은 없었지만... 애플 팬이 알아야 할 5가지, ITWORLD, 2023.03.06.
- 권택경, 인공지능, 위성 통신 시대 오나...MWC 2023에서 확인한 미래 키워드, IT동아, 2023.02.28.
- 김대영, 이동통신 혁신기술 모인 '이곳'...MWC 속 통신사 대표작은?, 매경닷컴, 2023.02.27.
- 김정유, 세계 최초 '5G 어드밴스드' 모뎀 공개한 퀄컴..'5G 혁신' 이끈다[MWC23], 이데일리, 2023.02.26.
- 김준혁, 나흘간 8만8500명 다녀간 MWC... AI·중국이 핫이슈 [MWC 2023 결산], 파이낸셜뉴스, 2023.03.05.
- 김창수, 인텔, MWC 2023서 다양한 신제품 선봬..5G 리더십 가속화, TECHMWORLD, 2023.02.28.
- 남도영, [MWC 23] '바운드 모바일 미래 엿본 'MWC 2023'..3대 키워드 '중국망사용료AI', TECH M, 2023.03.03.
- 문정화, 경북도 챗GPT 확산 인공지능 3대 정책방향 제시, 대구일보, 2023.03.07.
- 박서린, AI·동맹·6G 돋보인 'MWC 2023' 폐막, 중소기업신문, 2023.03.03.
- 박성우, MWC서 관람객 홀린 SKT 무인비행기, 조선비즈, 2023.03.06.
- 손재권, MWC 2023 "지금은 가속도의 시대", 더밀크, 2023.02.21.
- 손재권, MWC 2023 리뷰 : 파괴적 혁신은 살아있다, 더밀크, 2023.03.07.
- 송금종, [MWC 2023] 타투프린터·롤러블 모바일...현장 달군 이색 기술들, 쿠키뉴스, 2023.03.02.
- 윤민혁, [MWC 2023] 125개 K중견·스타트업도 AI 앞세워 유럽 공략, 서울경제, 2023.03.01.
- 윤현성, [MWC23] KT "글로벌에 '디지코' 경쟁력 알렸다..DX 기술 호평", 뉴시스, 2023.03.02.
- 이광영, [MWC 2023] 더 뚜렷해진 AI·5G 미래 스케치..세계 최대 ICT 축제 결산, IT조선, 2023.03.03.
- 이광영, [MWC 2023] 화웨이, 삼성 5배 공간서 '넥스트 5G' 가이드라인 제시, IT조선, 2023.02.28.
- 이도경, KICTA "올해 MWC, 한국 기업 130곳 참가", 서울파이낸스, 2023.02.21.
- 이영란, KB증권 "무인경제 시대, LG전자 · SK텔레콤 주목", 초이스경제, 2023.03.10.

- 이장준, [MWC 2023]'암흑기' 화웨이, 규모로 보여준 재기 의지, the bell, 2023.03.07.
- 이진호, [MWC 2023] "AI는 의사결정의 몽브자..네트워크의 힘으로 문제 해결", byline network, 2023.03.01.
- 이창희, 47년간 TV 만든 구미 LG전자 "이제는 로봇생산기지", 매일신문, 2023.01.08.
- 안현우, 김포공항서 워커힐까지 '가상 UAM 타고..온도 유지하는 배송로봇 만나고, 한국일보, 2023.03.01.
- 임성수, 구미 생산기지 세계 최대 서빙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 신제품 '서비 플러스' 출시, 영남일보, 2023.03.06.
- 한종해, [MWC 2023] 韓 기업들이 보여줄 기술은?, 파이낸셜투데이, 2023.02.26.

GERI 구미전자정보기술원

GERI 산업이슈 브리프

발간호수 : 2023년 제1호
발간물명 : MWC 2023 트렌드와 구미지역 시사점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9171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구미정책연구소
Tel. 054 479 2262 Mail. thekey@geri.re.kr